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며, 세 분 하나님은 동시에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1+1+1=3$ 이라는 논식에 익숙한 인간에게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신비로운 주제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만 강조한 자들도 있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태양은 하나이지만 거기서 빛과 열이 발산되는 것에 빗대어, 마치 성부는 태양, 성자는 빛, 성신은 열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얼음-물-수증기', '뿌리-줄기-가지'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그렇지만 양태론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성부 수난설). 삼위의 위격(位格)을 부인하는 이러한 주장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런가 하면 양태론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존 아스쿠나게스의 삼신론).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하나' 아니면 '셋'을 강조하는 이단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의 이성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것

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의 논식으로 이 신비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삼위일체의 주제를 다룰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관련하여서 이야기한다. 24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각기 이야기한다.

24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救贖),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聖化)에 관한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진리를 간결하게 묻고 가르치는 방식이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가르친다. 그렇게 보면 24문에서도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둘째는 성자 하나님, 셋째는 성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답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좀 더 길게 이야기한다. 우리를 지으시고, 새로 지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배우면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¹⁾ 삼위일체를 추상적·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삼위의 사역, 곧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서부터 유래한 방식이다. 루터는 1529년에 작성한 대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나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 나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요리문답 출판 450주년 기념 우표 (1529-1979년)

1) Dolf te Velde, "The Heidelberg Catechism on the Doctrine of Trinity", in A. Huigen ed., The Spirituality of the Heidelberg Catechism (Vandenhoeck & Ruprecht, 2015), 120-128.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리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를 포함하며, 이러한 삼위의 사역과 무관한 우리의 존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부의 창조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자의 구속이 없이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것이며,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삶에서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은 추상적이고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삼위일체를 계시하신 방식이기도 하다. 삼위일체의 교훈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교회는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교훈을 분명히 지키고 나왔던 것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심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성자·성신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4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가르쳤는데, 이제 25문에서는 신명기 6:4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아니신가?’ 하고 질문한다. 질문도 성경을 근거로 하였는데, 대답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가르친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임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의 진리를 단순하게 고백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다.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계시되었지만 신약에서 명료하게 드러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명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

다. 삼위일체의 계시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더 알아 간다.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일은 삼위 하나님의 각 위격의 사역이자 동시에 세 위격이 함께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를테면 창조의 일에서는 성부만 일하시고 구속의 일에서는 성자만 일하시며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는 성신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서 하듯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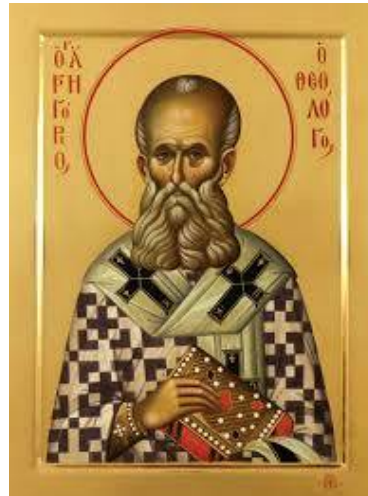
창조에 대해서만 살펴본더라도, 그 일은 성부께서 행하신 일일 뿐 아니라(창 1:1) 성자께서도 창조하셨으며(요 1:1) 성신께서도 함께 창조하셨다(창 1:2; 시 33:6; 104:30).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도, 이 땅에 성자를 보내어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은 성부이시고(요 3:16-17; 롬 8:32), 성자께서는 성신으로 잉태되었으며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셨다(마 1:20; 마 12:28; 행 10:38). 성화의 일도 성신께서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벧전 1:15-17; 갈 4:6; 살전 5:23),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되신다(고전 6:11; 1:30; 엡 5:26). 삼위의 존재가 나뉠 수 없듯이, 삼위의 사역 또한 엄격하게 셋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없다.

이처럼 삼위가 함께 일하시지만, 또한 구분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와 성신께서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셨지만(마 3:17-18),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도 성신도 아니고 성자이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이셨고, 성부께서 성신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자이시다(롬 8:11).

이처럼 성부 성자 성신이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신 또한 성자가 아니고 각 위격 간에 어떤 특성에 따라 구분이 있음을 ‘삼위일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신비로운 사실을 갑바도기아(현재 터키 중부 내륙 지역)의 교부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였다.

나는 재빨리 삼위의 휘광으로 휘감기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즉시 한 분에게로 옮겨지지 않고는
삼위를 구별할 수 없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약 329-390)

삼위일체와 복음 전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일을 통하여 추상적인 삼위일체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삼위일체의 사역을 보았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더욱 친숙히 알아 간다. 그렇지만 여전히 삼위일체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그냥 강조하지 않고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삼위일체는 이

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만 강조하여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전도를 위하여서 삼위일체를 조금 뒤로 밀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신을 보내셔서 지금도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내용을 전한다. 삼위 하나님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다. 25문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계시를 떠나서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곧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다.²⁾

삼위일체와 신자의 삶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이름으로 표현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마 28:19). 성자는 항상 성부의 뜻만을 행하셨고(요 5:19), 성신은 또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자의 뜻만을 행하신다(요 16:13-14). 동등이시지만 그러한 질서가 있는 삼위일체의 거룩한 사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귄이 나타나도록 하셨으며, 교회 안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질서와 사귄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성도가 하나 되어서 삼위 안에 있음으로써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요 17:21).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목적은 우리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신비를 이 땅에서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2) C. P. Venema, What We Believe (Reformed Fellowship, 1996), 20-21.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그분과의 거룩한 사귄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도 삼위 하나님의 상호 교제에 있다. 영원하신 뜻을 공유하시면서 사랑과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에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복으로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찬송함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결국 삼위께서 하신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일도 부인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기둥을 들어내면 자연히 집 또한 무너지는 것과 같다. 사탄은 사람의 이성애 호소하면서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공격하였다. 그렇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무너지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높임으로써 신성을 경시하는 일이 많고, 성신에 대하여서도 그분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사람의 종교적 느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고대의 이단들은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를 비난하고 나섰다가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요즈음

에는 것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그들과 매우 비슷한 종교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이단에 속한 사람과 참신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단은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과 셋 사이를 오가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파악'하려고 하였지만, 교회는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이야기하고 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만큼은 계시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소년의 대화(보티첼리 작, 1488년경)

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의 일화 한 가지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그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골몰하며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그러다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에 작은 웅덩이를 파고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서 그 웅덩이를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바닷물 전체를 그 웅덩이에 퍼 담으려는 아이에게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은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이라 지적하였고, 그러자 아이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의 작은 지성에 담는 일은 더 불가능하다'고 말한 뒤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파악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바닷물을 퍼내는 수고를 영원히 하겠지만, 우리는 경배하는 태도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을 받고 나간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다 해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그분과의 거룩

한 사귄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삼위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 간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